

정영재의 스포츠 인사이드 프로 판 흔드는 스포츠 예능

예능 양념 뿐였더니… 배구 맛을 알아버렸다



1 MBC 스포츠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에 출연한 몽골 소녀 인쿠시는 종영 후 프로구단 정관장에 입단했다.



2 세터 이나연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3 예능 프로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감독 김연경.

정영재
칼럼니스트

쿠시는 팀의 주득점원으로 우뚝 섰고, 종방 후 프로구단 정관장의 선택을 받아 꿈에 그리던 프로 선수가 된다. 정관장은 최하위에 처져 있지만 인쿠시는 팀 흥행을 이끄는 스타가 됐다.

세터 이나연(33)도 반전 스토리를 썼다. 그는 14년간 프로에서 뛰다가 토스 임스(정신적 문제로 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함)가 와서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 원더독스 초기에도 한번 실수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했으나 점점 안정을 찾는다. 주전 세터가 부상 중인 흥국생명의 부름을 받아 지난해 11월 다시 프로 유니폼을 입은 이나연은 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꼴찌 후보로 꼽히던 흥국생명은 이나연의 합류 이후 급반전, 2위로 올라섰다.

'신인감독 김연경'은 "김연경 은퇴로 여자배구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루저들의 성장 서사'를 응원하던 팬들은 이들을 따라 배구장으로 향했다. 배구의 냄새와 맛을 알아버린 시청자들은 평일 오후 7시 경기 시작을 기다린다. 지난 시즌 대비 관중은 5.3%포인트 늘었고, 시청률은 1.18%에서 1.37%로 0.19%포인트 올랐다. 김연경 감독과 권학희 PD는 V리그 올스타전에서 한국배구연맹(KOVO)의 감사패를 받았다.

인쿠시의 에이전트인 김성우 팀큐브 대표는 "인쿠시가 솔직히 배구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

MBC '신인감독 김연경' 방영 계기
프로배구 경기장에 입덕 팬들 몰려

신예·루저 성장 서사가 흥행 포인트
몽골 소녀 인쿠시, 프로 입단 성공도

자칫 예능이 '동네운동회' 만들 우려
야구도 인기 취한 동안 성적표 엉망



JTBC '최강야구' 포스터. 프로야구 저변 확대의 일등공신이다. [중앙포토]

않나. 그럼에도 밝고 반듯한 모습과 배우려는 자세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선수들 유니폼에 마이크를 채우고, 리커버리든 숙소든 카메라를 들이대 선수들만이 아는 이야기, 선수끼리 하는 이야기, 배구의 아기자기한 전술을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학습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강야구'에 대한 전문가 견해와 일치한다. SSG 랜더스의 2022년 통합우승 단장이었던 류선규 씨는 "최강야구가 야구장 문턱을 확 낮췄다. 야구는 룰이 복잡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최강야구를 통해 여성들이 야구 규칙과 재미를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야구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체육철학자 김정효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웨더독 현상을 소설의 액자 구조(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있음)와 격자 구조(스토리끼리 반복-교차됨)를 끌어와 설명한다. "미국·일본의 관중문화는 액자 속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 경기를 감상하고 즐긴다. 한국은 관중이 경기에 관여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격자 구조다. 대표적인 게 롯데 야구장의 마!"다. 우리 팀 주자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한국은 선수와 나, 경기와 관중이 떨어져 있지 않다."

한국 여자배구는 2020 도쿄 올림픽 4강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제경기 30연패 수모를 당했고, 국제구연맹(FIVB) 랭킹도 40위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쿼터로 V리그에 온 태국·인도네시아 선수들이 한국 공격수를 압도한다.

예능 프로그램이 프로 종목의 흥행을 쥐락펴락하는 현상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국인은 스포츠 경기 예능이라는 '세상에 없던' 장르를 만들었다. 그것의 재미와 몰입감은 대단하다. 또 참여 서사를 통해 팬덤을 형성하고 '파자부활전이 있는 사회'를 꿈꾸게 한다. 물론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줄 위험도 있다. 그래서 스포츠 예능은 '양날의 검'이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정관장 입단 행운 누린 인쿠시… 프로 무대 남을 수 있을까

인쿠시의 소속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봄 배구' (V리그 포스트시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2025-26 정규시즌 최종전(3월 15 일 폐페저축은행)이 인쿠시의 프로 무대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V리그 아시아 쿼터도 자유계약 방식으로 바뀌어 선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쿠시는 어디로 갈까. 김성우 대표는 "아시아 쿼터에 재도전, 실업팀 입단, 몽골로 복귀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

다. 귀회할 마음도 있지만 일반귀회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별귀회도 기준이 높아져서 대한체육회나 배구협회가 국가대표 재목으로 인정할 정도가 돼야 한다.

사실 인쿠시가 정관장에 들어간 데는 운도 작용했다. 아시아 쿼터로 뽑은 태국 선수의 부상이 길어진 상황에서 원더독스와 정관장의 경기 때 고회진 감독이 인쿠시를 눈여겨봤다.

김 대표는 "팀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옥먹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고 감독이 "난 상관없

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다고 한다.

원더독스 멤버였던 타마리(26)는 국내에서 떨 팀을 찾지 못해 몽골로 복귀했다. 인쿠시도 원더독스를 하기 전까지 '몽골로 돌아가야 하니'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다양한 종목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국내 선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인쿠시의 등장은 이런 화두를 던졌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정영재 중앙일보·중앙SUNDAY 스포츠 기자 출신 칼럼니스트. 2013년 스포츠 기자의 최고 영예인 '이길용체육기자상'을 받았다. 현재 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스포츠 다큐: 죽은 철인의 사회' 등 저서가 있다.